

2020년 5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경제 재개 기대 속 나스닥 상대적 약세

엔택트 관련주 지난 주 후반 이후 지속적인 매물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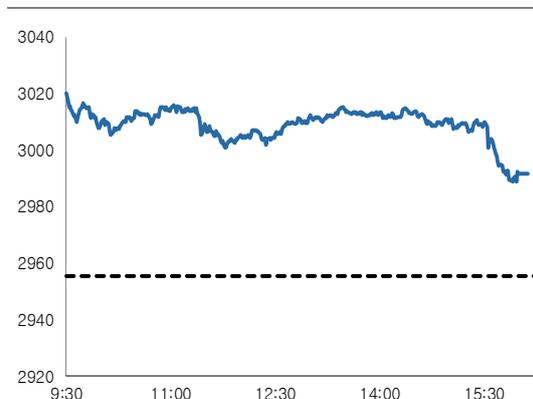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엔택트 관련주 하락 Vs. 금융, 산업재, 소비관련 주 강세

미 증시는 공화당의 추가 부양 정책 언급, 중국 부양정책 기대와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 특히 금융업종을 비롯해 여행, 항공, 소매 유통업종이 상승을 주도. 반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엔택트 관련 종목을 비롯한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며 나스닥의 상대적 부진이 특징(다우 +2.17%, 나스닥 +0.17%, S&P500 +1.23%, 러셀 2000 +2.77%)

전일 휴장이었던 미 증시는 글로벌 각국의 경제 재개 소식에 힘입어 상승. 더 나아가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 촉진 정책 등 부양정책 발표도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 여기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두 번째 대공황 우려가 있으나 코로나 19 초기 위험은 지나가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언급하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유로존 경제가 4월에 바닥을 형성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내용도 긍정적. 물론 대다수 연준위원들은 여전히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를 주문하는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단계적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반등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 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음

이런 가운데 미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업종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 그동안 상승을 주도 했던 엔택트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지난 주 후반부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목군이 3~5 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급락세를 보이던 항공과 여행 등은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고, 호텔 투숙률이 5 주 연속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더불어 중국의 대규모 신에너지 자동차 등 인프라 투자 소식에 2 차전지 ETF(LIT +6.03%)를 비롯해 철강, 기계 등 산업재는 물론 금융주가 급등. 전반적으로 미 증시는 이러한 업종별 차별화 속 다우지수는 급등했으나 나스닥은 상대적 부진을 보이며 마감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29.78	+1.76	홍콩항셱	23,384.66	+1.88
KOSDAQ		729.11	+1.28	영국	6,067.76	+1.24
DOW		24,995.11	+2.17	독일	11,504.65	+1.00
NASDAQ		9,340.22	+0.17	프랑스	4,606.24	+1.46
S&P 500		2,991.77	+1.23	스페인	7,003.90	+2.15
상하이종합		2,846.55	+1.01	그리스	635.47	+1.79
일본		21,271.17	+2.55	이탈리아	17,860.46	+1.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언택트 관련주 하락

JP모건(+7.10%)은 CEO가 현재는 좋은 주가라고 주장하자 급등 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 국내금리 강세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웰스파고(+8.65%), 씨티그룹(+9.23%) 등 상업은행은 물론 코메리카(+12.37%) 등 지역 은행, 골드만삭스(+8.96%) 등 투자은행, 찰스스왑(+5.09%) 등 자산관리 업종, 메트라이프(+8.28%) 등 보험사들도 급등했다. 철제 사무기구 제조회사인 스틸케이스(+11.47%)은 매장 오픈과 고용 재건 등을 발표하자 급등했으며, US스틸(+8.55%) 등 철강업종도 강세를 보였으며, 캐터필라(+4.39%), 3M(+3.85%) 등 산업재도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보잉(+5.24%), 델타항공(+13.05%)은 물론 GM(+5.47%) 등 자동차, 부킹닷컴(+7.09%), 라스베가스 샌즈(+6.46%) 등 여행, 리조트업종, 엑손모빌(+2.94%) 등 에너지 업종도 경제 재개 소식에 힘입어 급등 했다. 반면, 넥플릭스(-3.39%) 등 스트리밍 업종, 블리자드(-4.21%) 등 게임주, 어도비(-2.24%) 등 소프트웨어 업종은 물론 페이팔(-2.56%), NVIDIA(-3.42%), 아마존(-0.62%), MS(-1.06%), 줌비디오(-4.13%) 등 언택트 관련 종목군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07%	대형 가치주 ETF(IVE)	+2.49%
에너지섹터 ETF(OIH)	+5.59%	중형 가치주 ETF(IWS)	+3.71%
소매업체 ETF(XRT)	+2.76%	소형 가치주 ETF(IWN)	+4.19%
금융섹터 ETF(XLF)	+5.20%	대형 성장주 ETF(VUG)	+0.24%
기술섹터 ETF(XLK)	-0.10%	중형 성장주 ETF(IWP)	+0.9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75%	소형 성장주 ETF(IWO)	+1.83%
인터넷업체 ETF(FDN)	-0.19%	배당주 ETF(DVY)	+3.13%
리츠업체 ETF(XLRE)	+3.1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78%
주택건설업체 ETF(XHB)	+3.9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49%
바이오섹터 ETF(IBB)	-1.90%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X)	-0.18%	하이일드 ETF(JNK)	+0.86%
곡물 ETF(DBA)	+1.78%	물가연동채 ETF(TIP)	-0.37%
반도체 ETF(SMH)	+0.86%	Long/short ETF(BTAL)	-1.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7.34	+2.91%	+1.53%	+10.10%
소재	341.73	+2.66%	+2.09%	+6.20%
산업재	560.67	+4.24%	+4.82%	+5.13%
경기소비재	993.30	+1.11%	+2.14%	+6.46%
필수소비재	591.11	+0.53%	-0.87%	-2.17%
헬스케어	1,156.27	-0.19%	-1.89%	-2.32%
금융	381.92	+5.04%	+4.02%	+2.11%
IT	1,692.53	-0.12%	+0.58%	+7.62%
커뮤니케이션	180.36	+0.28%	+2.56%	+8.95%
유틸리티	287.76	+0.73%	-0.37%	-3.92%
부동산	208.87	+3.17%	+3.81%	-1.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별 차별화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3.46% MSCI 신흥 지수 ETF 도 2.20%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2.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제 재개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 특히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촉진 정책 발표에 힘입어 2 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며 상승을 주도했다. 미-중 마찰이 격화되고, 연준의 경기 회복 속도 지연 우려 표명 등에도 불구하고 악재성 재료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상승을 이어간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미 증시 상승의 특징인 경제 재개 및 중국 부양정책 등은 전일 선반영이 된 점을 감안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코로나 수혜주로 일컫는 언택트 관련주가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미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으로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 시클릭 업종 전반에 걸쳐 매수세를 보였으나,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와 바이오주의 경우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어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지표 예상 하회

5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85.7) 보다 개선된 86.6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88.3)을 하회했다. 현재 여건은 전월(73.0) 보다 부진한 71.1 로 발표된 반면 기대 지수가 전월(94.3) 보다 양호한 96.9로 발표돼 경제 재개가 소비자들에게 자신감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4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61.9 만건) 보다 증가한 62.3 만건을 기록했는데 예상(49.5 만건)을 크게 상회한 결과다. 판매 가격은 32만 6,900 달러에서 30만 9,900 달러로 하락했다.

5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74.0)이나 예상(-57.0) 보다 개선된 -49.2 로 발표되었다. 특히 신규수주(-68.7→-36.0), 고용지수(-22.0→-11.5) 등 세부항목 대부분 개선되었다.

4월 시카고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4.97) 보다 부진한 -16.74 로 발표되었으며 3개월 평균도 -1.69에서 -7.22로 발표됐다. 이 지표는 경제확장기간이후 -0.7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침체가 이어진 후 2 이상으로 높아지면 경기침체가 끝날가능성을 보여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가 확산되며 상승 했다. 특히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고 공항 이용객 또한 급증 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되자 강세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6~7 월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는 경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더 나아가 다음 달 OPEC 정례회의를 앞두고 사우디는 물론 UAE, 쿠웨이트와 더불어 미국의 추가 감산 기대가 높아진 점도 유가 상승에 우호적이었다.

달러화는 경제 재개에 기대 달러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파운드화는 영국의 경제 재개 및 EU 와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폭이 컸다. 캐나다 달러 등 상품 환율도 경제 재개 기대 속 강세폭이 컸다.

국채금리는 경제 재개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 회복 속도 지연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상승은 제한 되었다. 더불어 2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61 배)을 상회한 2.68 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49.8%)을 상회한 53.1%를 기록하는 등 국채 수요가 높았던 점도 상승 제한 요인이었으며 단기물의 경우 장 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69%, 철근은 0.74%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4.35	+3.31	+8.53	Dollar Index	98.976	-0.89	-0.40
브렌트유	36.17	+1.80	+4.39	EUR/USD	1.0987	+0.82	+0.59
금	1,728.20	-1.44	-1.06	USD/JPY	107.51	-0.19	-0.19
은	17,595	-0.55	+0.73	GBP/USD	1.2333	+1.16	+0.65
알루미늄	1,519.50	+0.86	+1.57	USD/CHF	0.9653	-0.68	-0.62
전기동	5,362.00	+1.39	+0.84	AUD/USD	0.6657	+1.71	+1.84
아연	1,982.00	-0.18	-2.08	USD/CAD	1.3787	-1.42	-1.13
옥수수	319.00	+0.31	-0.55	USD/BRL	5.3518	-1.72	-7.01
밀	506.75	-0.39	+1.96	USD/CNH	7.1462	-0.03	+0.39
대두	847.00	+1.65	+0.24	USD/KRW	1234.30	-0.80	+0.73
커피	105.10	+1.45	-2.46	USD/KRW NDF1M	1232.50	-0.69	+0.5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88	+2.93	+0.02	스페인	0.691	+8.60	+5.30
한국	1.337	+2.50	-5.50	포르투갈	0.681	-1.50	-7.70
일본	0.008	+0.60	+0.20	그리스	1.638	-2.00	-20.50
독일	-0.429	+6.50	+3.50	이탈리아	1.548	-2.40	-8.40